

## 유배우 취업모의 사회적 역할의 질과 건강에 대한 구조모형

박 은 옥\*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산업사회의 경제활동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터는 남성에게, 무보수의 가사노동과 자녀 육아 등은 여성의 일로 분리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여성의 취업,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유배우취업모의 역할은 가정에서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가정 밖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가부장적 가치관의 잔존으로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역할의 질이란 '역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대, 역할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호의적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Park et al., 1999), 역할의 질은 역할의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Hibbard & Pope, 1993), 이러한 역할의 질이 건강과 연관성을 갖는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다.

배우자 역할의 질은 심리적 건강이나 신체적 건강 혹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되었고(Choi, 1993; Koh, 1998; Vandewater et al.,

1997; Wickrama et al., 1997; Windle & Dumenci, 1997), 부모역할과 건강과의 관계는 집안에 자녀가 있는가 여부보다도 자녀양육의 요구수준과 책임 정도가 얼마나 많은가와 관련된다고 하는데(Rosenfield, 1989), 어머니 역할수행부담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고, 생활만족도는 낮다고 하였고(Chin, 1993),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와(Windle & Dumenci, 1997), 부모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다는 연구가 있었다(Miller et al., 1998). 직업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수준이 좋고(Barnett et al., 1993; Choi, 1993), 신체적 건강수준도 높으며(Yoon, 1996), 삶의 질도 높다고 보고되었다(Bergman et al., 1996).

이렇게 사회적 역할과 건강에 대한 관련성은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지만 역할이 어떤 기전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서 자기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Rosenberg & Pearlin, 1978),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 심리적 중심성(Psychological centrality) 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Rosenberg, 1981; Rosenberg & Pearlin, 1978).

이같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원리를 볼 때 역할이 사회적 지위와 필연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있어 역할상대가 존재하여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대, 역할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호의적 평가로 정의되는 역할의 질이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연구를 통해 역할의 질이 자아존중감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Pugliesi, 1995), 건강과도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고되었다(Kim & Park, 1997; Park, 1997; Shin, 1993; Sim, 1996).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역할의 질과 건강수준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국내의 기혼취업여성에게도 역할의 질이 건강수준을 예측해주는 유의한 변수인지, 자아존중감이 역할의 질과 건강과의 관계를 매개해주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의 주요한 사회적 역할과 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역할의 질과 건강에 대한 구조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배우자, 부모, 직업역할의 질과 건강에 대한 가설모형을 구성하고, 둘째, 배우자, 부모, 직업역할의 질, 자아존중감 및 건강수준을 파악하며, 셋째, 이들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넷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를 검정하여 사회적 역할과 건강과의 구조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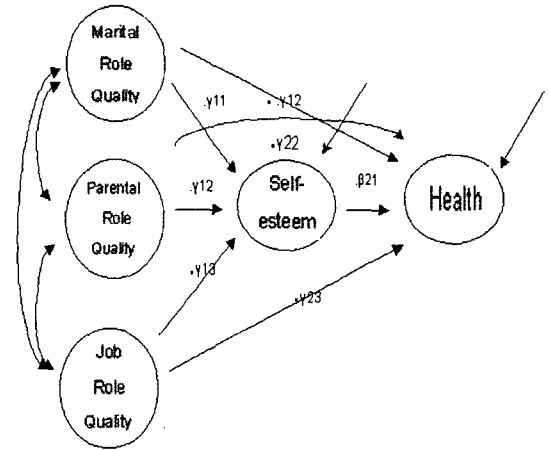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대상자를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임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설계가 횡단적이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성이 반드시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자녀를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으므로 대상자의 응답이 자녀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측정의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II. 이론적 개념들

문헌고찰을 통해 배우자, 부모, 직업 역할의 질과 자아존중감, 건강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모형을 설정하였다. 배우자, 부모, 직업역할의 질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수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역할의 질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설설정을 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Figure 1 참조).



(Figure 1) Hypothetical Model on Social Role Quality, Self-esteem, and Health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가운데 취업 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취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역할전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Booth(1979)의 연구에 근거하여 조사시점에서 취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 2. 자료수집

1998년 8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를 표집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수도권 신도시에서 협조가 가능한 어린이집 2곳, 유치원 1곳, 초등학교 3개교씩,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3개교, 중간층인 지역에 있는 학교는 4개교,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는 2개교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든 원아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여 취업자만을 가려내었고,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어머니가 취업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주고, 다시 회수하도록 하였다. 회수율은 62.3%였으며, 323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 3. 측정도구

#### 1) 역할의 질

역할의 질은 Park et al.(1999)의 연구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배우자 역할의 질은 Likert 5점 척도의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 후 신뢰도 평가에서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문항 1개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19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 이었다. 부모역할의 질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  $\alpha = .86$ 였다. 직업역할의 질은 27문항이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 였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도구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문항 1개를 제거한 9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에는 Cronbach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2$ 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건강수준

Ware & Sherbourne(1992)에 의해 개발되어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토되었고, 국내에서도 Koh et al.(1997)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SF-36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F-36은 기능수준, 안녕수준, 전반적인 건강평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9개 하부영역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능 영역을 제외하는 경우 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되어 이들 문항은 제외하였다. 또한 통증 영역은 전체 건강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 영역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이용한 문항은 6개 영역 31개 문항으로 Cronbach  $\alpha = .84$ 이었다.

#### 4. 분석방법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빈도, 연구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적 통계치를 분석하고 정규분포에 대한

검정,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WINDOW SAS 6.2 program을 이용하였다. 역할의 질과 자아존중감, 건강에 대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LISREL 8.13 program을 이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보면 연령은 41-45세가 38.2%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46.8%, 고등학교 졸업자가 158명으로 50.3%였으며, 월평균 가계수입은 150만원 미만 21.6%, 150-250만원 39.5%, 350만원 이상인 경우가 12.7%였다. 직업은 판매직이 89명, 2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문행정직으로 26.1%였으며, 서비스직이 24.5%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분포에서는 취업한지 6-10년이 지난 경우가 24.7%, 1-2년인 경우가 23.8%, 3-5년인 경우는 21.6%, 16년 이상이 19.1%, 11-15년 된 경우는 10.9%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41-60시간 근무자가 186명으로 59.2%였고, 본인의 월평균 수입은 50-100만원인 경우가 36.5%로 많았다. 정규직이 80.4%를 차지하였다. 결혼기간은 16-20년인 경우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21년 이상인 경우는 20.3%, 10년 이하인 경우는 12.1%였다. 남편의 직업은 비전문직이 71.7%였다. 부부간 노동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도는 공평하지 않거나 아주 공평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사람이 56.4%로 절반 이상이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26.3%, 아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6%에 불과하였다. '아주 불공평하다'를 1점 -- '아주 공평하다'를 5점으로 하였을 때, 평균값은 2.70이었다.

### 2. 역할의 질, 자아존중감, 건강수준

각 역할의 질과 자아존중감, 건강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척도의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요인별 문항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배우자 역할의 질에 대한 평균은 3.27이고, 부모역할의 질은 3.88이었으며, 직업역할의 질은 3.38으로 나타나, 부모역할의 질이 가장 높고, 배우자 역할의 질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Role Quality,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Variables	Mean	S.D	Range	Skewness	Kurtosis	Wilk's Lamda
Marital Role Quality	3.27	0.72	1-5	-0.070	-0.437	0.978
Parental Role Quality	3.88	0.49	1-5	-0.003	-0.362	0.979
Job Role Quality	3.38	0.50	1-5	0.168	0.347	0.985
Self-Esteem	3.70	0.61	1-5	0.026	-0.137	0.975*
Health Status	2.80	0.66	0-5	-0.398	-0.554	0.953***

\* p&lt;0.05 \*\*\* p&lt;0.001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3.70으로 중간점수인 3보다 높은 점수였다. 건강수준은 0-100점 사이의 점수일 때 평균 69.04였는데, 다른 변수와 측정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0-5점 사이의 점수범위를 갖도록 재조정하였고, 평균 2.80, 표준편차 0.66이었다. 정규성의 검정에서는 정규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첨도와 왜도와 첨도가 작은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3. 역할의 질, 자아존중감, 건강간의 상관관계

각 역할의 질과 자아존중감, 건강수준은 모두 순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참조). 배우자 역할의 질이 좋을수록 부모 역할의 질, 직업 역할의 질, 자아존중감, 건강수준이 좋으며, 부모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 직업 역할의 질, 자아존중감, 건강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역할의 질과 부모 역할의 질 간의 상관성이 컸고( $r=0.436$ ), 배우자 역할의 질과 직업 역할의 질 간에도 상관계수  $r=0.408$ 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부모 역할의 질과 상관관계가 가장 컸고( $r=0.478$ ), 직업 역할의 질, 배우자 역할의 질 순서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였고( $r=0.347$ ), 직업 역할의 질, 배우자 역할의 질, 부모 역할의 질 순서로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났다.

### 4. 역할의 질, 자아존중감, 건강에 대한 구조모형

각 변수의 측정오차는 (1-Cronbach  $\alpha$ ) 값으로 고정하고, 모델에 대한 LISREL 분석을 한 결과, 배우자 역할의 질이 자아존중감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구조계수  $r=0.02$ 이고, 부모역할의 질이 건강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구조계수  $r=0.05$ 로 그 크기가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아 이 경로를 제거함으로써 모델을 간명하게 하고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이 경로를 제거한 후의 공변량구조분석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공변량구조분석을 토대로 가설검정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부모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r=.42$ ,  $p<.001$ ). 직업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도 경로계수  $r=.3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건강수준도 좋았으며( $r=.14$ ,  $p<.05$ ), 직업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좋았다( $r=.16$ ,  $p<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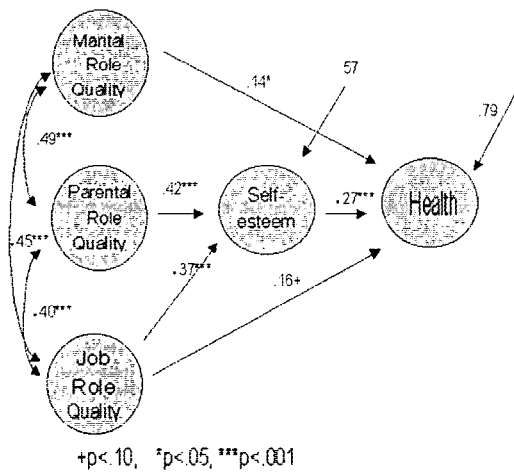
이 구조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는 Chi-square 0.58 ( $p<0.75$ ), GFI=1.00, AGFI=0.99, NFI=1.00, NNFI=1.02, RMR=0.0072 등으로 이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매우 잘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역할의 질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건강수준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0.1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직업 역할의 질도 0.26으로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Marital Role Quality	Parental Role Quality	Job Role Quality	Self-esteem
Marital	1.000			
Parental	0.436*	1.000		
Job	0.408*	0.340*	1.000	
Self-esteem	0.356*	0.478*	0.445*	1.000
Health	0.289*	0.261*	0.316*	0.347*

\* p&lt;0.001



Fit-Index

Chi-square with 2 degrees of freedom = 0.58(p=0.75)  
 GFI(Goodness of fit index) = 1.00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9  
 NFI(Normal fit index) = 1.00  
 NNFI(Non-normed fit index) = 1.02  
 RMR(Root mean square residual)=0.0072  
 PNFI(Parsimony normed fit index) = 0.20

<Figure 2> The Modification Model on Social Role Quality, Self-esteem, and Health

가 있었다(<Table 3> 참조). 그러나 배우자역할의 질은 건강에 대해 직접 효과만 유의할 뿐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역할의 질이었고, 건강수준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직업역할의 질이 비교적 큰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ocial Role Qualities on Self-Esteem and Health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PSI
Self-esteem	Marital	-	-	-		
	Parental	0.42***		0.42***	0.43	0.57
	Job	0.37***		0.37***		
Health	Marital	0.14*	-	0.14*		
	Parental	-	0.11**	0.11**		
	Job	0.16+	0.10**	0.26***	0.21	0.79
	Self-esteem	0.27***		0.27***		

+p<.10, \*p<.05, \*\*p<.01, \*\*\*p<.001

자아존중감은 역할의 질이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에 대해 다중상관자승치는 자아존중감은 0.43, 건강수준은 0.21이었다. 자아존중감은 배우자, 부모, 직업역할의 질에 의해 43%정도 설명되므로 무난한 정도이지만, 건강수준은 21%로 조금 낮다(<Table 3> 참조).

이 모형은 역할의 질과 건강에 대한 가설적 모형에 대해 공변량구조분석을 한 결과 배우자 역할의 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와 부모 역할의 질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에 기초하여 모형을 수정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 모델이 잘 부합되었지만, 이 모델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자료에 의해 일반성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V.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규직 80.4%, 시간제 임시직 18.9%로 정규직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1998년도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재석한 결과 여성취업자의 56.81%가 임시직이라고 응답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자료수집을 학교 학생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시직으로 취업해 있는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역할의 질과 건강수준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에서 배우자 역할의 질은 건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모 역할의 질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고, 직업 역할의 질은 직간접적으로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 역할의 질은 기존 연구에서도 우울수준을 감소

시키고, 삶의 질 등을 유의하게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Barnett et al., 1995; Choi, 1993; Kandel et al., 1985; Koh, 1998; Miller et al., 1998; Wickrama et al., 1997). 결혼상태에 따라 건강수준을 비교할 때, 기혼 유배우 집단과 미혼여성 집단 간에 건강수준에 차이가 없어(Park, 1994), 결혼상태 자체보다는 배우자 역할의 질이 여성의 건강수준을 예측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 역할의 질이 다른 변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부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부모 개인에게 자신을 더욱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부부간 대화가 더 많아지는 등의 잇점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Lee, 1984; Hyun & Cho, 1994 recitation). 전통적인 성역할구분과 가족주의 가치가 엄격하게 제시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가족과 모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정지향성이 사회의 규범으로 강조되고 가정내에서의 역할수행이 여성의 일차적인 존재양식으로 요구된다(Lee, 1987; Chin, 1993 recitation).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부모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여성은 자신을 더욱 가치있고 유능하며 성공적인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 역할의 질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업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 다른 사람의 인정, 발전가능성 등 직업의 내적 보상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증진된다는 연구결과(Aston & Lavery, 1993)와도 일치된다. 직업 역할의 질은 건강수준에 대해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 뿐 아니라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건강수준에 미치는 총효과는 배우자 역할의 질이나 부모 역할의 질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가 된다. 따라서 배우자 역할의 질이나 부모 역할의 질 보다는 직업 역할의 질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역할의 질과 건강과의 매개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역할의 질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만 유의하였고, 직업역할의 질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이러한 역할의 질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변량의 43%가 설명되는 반면 건강수준은 21%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상관상승치가 낮으면 변량의 많은 부분이 예측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잔여분 변수의 변량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는 바(Lee, 1990), 건강수준에 대한 설명력이 낮은 것은 건강이 역할의 질이나 자아존중감 이외에도 생활습관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유배우 취업모의 배우자, 부모, 직업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역할의 질과 건강에 대한 구조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운데 자녀가 있는 여성 342명을 대상으로 몇가지 일반적 특성과 역할의 질은 Park et al.(1999)의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배우자 역할의 질, 부모 역할의 질, 직업 역할의 질 등을 측정하였고, Rosenberg(1965)의 척도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며, Ware & Sherborne (1992)의 SF-36을 이용하여 건강수준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도구들의 신뢰도는 모두 Cronbach alpha).8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가설모형을 수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고, 부모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r=.42, p<.001$ ), 직업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도 경로계수  $r=.3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건강수준도 좋았으며( $r=.14, p<.05$ ), 직업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좋았지만( $r=.16, p<0.10$ ), 부모역할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역할의 질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건강수준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0.1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직업 역할의 질도 0.26으로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역할의 질이었고, 건강수준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직업역할의 질이 비교적 큰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역할의 질이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 직업역할의 질에 의해 자아존중감

의 43%가 설명되며, 건강수준은 배우자, 부모, 직업역할의 질과 자아존중감에 의해 21%가 설명되었다. 이 구조모형의 전반적 적합지수는 Chi-square 0.58(p<0.75), GFI=1.00, AGFI=0.99, NFI=1.00, NNFI=1.02, RMR=0.0072 등으로 이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매우 잘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제 언

본 연구는 역할의 질이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고, 역할의 질과 건강수준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밝혀낸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역할의 질이 자아존중감, 건강수준 등에 중요한 변수임을 제안하며, 국내에서 새롭게 시도된 연구인만큼 반복연구를 통해 실제로 이러한 결과가 현실의 경험세계를 잘 반영하는 것인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성과 남성은 역할이 다르고 건강수준의 차이도 존재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역할의 질에 의해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설명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장과 가정에서 유배우취업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역할의 질 향상을 통한 자아존중감과 건강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여성이 취업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자녀양육을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해주어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기능 강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사노동에 남편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노동분담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배우자 역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 Reference

- Aston, J., & Lavery, J. (1993). The health of women in paid employment: effects of quality of work role, social support and cynic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Women and Health, 20*(3), 1-25.
- Barnett, R. C., Marshall, N. L., Raudenbush, S. W., & Brennan, R. T. (1993). Gen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udy of dual-earner couples. *J of Pers & Soc Psy, 64*(5), 794-806.
- Barnett, R. C., Raudenbush, S. W., Brennan, R. T., Pleck, J. H., & Marshall, N. L. (1995). Change in job and marital experiences and change in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study of dual-earner couples. *J of Pers & Soc Psy, 69*(5), 839-850.
- Bergman, B., Carlsson, S. G., Wright, I. (1996). Women's work experiences and health in a male-dominated industry. A longitudinal study. *J of Occup & Env Med, 38*(7), 663-672.
- Booth, A. (1979). Does wives' employment cause stress for husbands? *The Family Coordinator, 28*(Oct), 445-457.
- Chin, M. J. (1993). *The mother-role burd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Choi, K. R. (1993).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dual-earner couples. *J of Kor Home Econo Acad Soc, 31*(1), 61-84.
- Hibbard, J. H., & Pope, C. R. (1993). Health effects of discontinuities in female employment and marital status. *Soc Sci Med, 36*(8), 1099-1104.
- Hyun, O. G., & Cho, B. H. (1994). Development of parental role satisfaction. *J of Kor Home Econ Acad Soc, 32*(1), 103-117.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 Kim, C. S., & Park, M. H.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 anxiety of the aged. *Joong-Ang Med*, 62(4), 375-387.
- Koh, J. J. (1998). The influences of Job characteristic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dual earner couples. *J of Kor Home Econ Acad Soc*, 36(4), 163-178.
- Koh, S. B., Jang, S. J., Kang, M. G., Cha, B. S., & Park, J. K.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on measurement instrument for health status assessment in occupational workers. *Kor J of Prev Med*, 30(2), 251-266.
- Lee, S. M. (199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Sung won sa.
- Miller, A. M., Wilbur, J., Montgomery, A. C., & Chandler, P. (1998). Social role quality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in employed black and white midlife women. *AAOHN J*, 46(8), 371-378.
- Park, E. (1994). *Effects of employment and marital status on health status of women and me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Park, E., June, K. J., & Kim, W. J. (1999). Development of role quality scales for Korean women. *J of the Kor Soc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3(1), 117-132.
- Park, M. K. (1997). A study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health status of elderly persons. *Joong-Ang Med*, 62(10), 863-871.
- Pugliesi, K. (1995). Work and well-being: gender difference in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employment. *J of Hlth and soc Beh*, 36(march), 57-71.
- Rosenberg, M. (1981).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M. Rosenberg and RH Turner(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ceptions* New York: Basic Books, Inc. 593-62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 Pearlman, L. I. (1978). Social class and self esteem among children and adults. *Am J of Soc*, 84, 53-77.
- Rosenfield, S. (1989). The effects of wives' employment: personal control and sex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J of Hlth and Soc Beh*, 30, 213-225.
- Shin, K. R. (1993). Factors predicting depression among Korean-American women in New York. *Int J of Nur Stud*, 30(5), 415-423.
- Sim, H. (1996). Attributional style and mediator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fluencing on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J of Kor Home Econ Acad Soc*, 34(4), 63-73.
- Vandewater, E. A., Ostrove, J. M., & Stewart, A. J. (1997). Predicting women's well-being in midlife: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social role involvement. *J of Pers and Soc Psy*, 72(5), 1147-1160.
- Ware, J. E., & Sherbourne, C. D. (1992). The MOS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SF-36). Conceptual framework and item selection. *Med Care*, 30, 473-483.
- Wickrama, KAS., O'Lorenz, F., Conger, R. D., & Elder, Jr. G. H. (1997). Marital quality and physical illnes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 of Mar & Fam*, 59(Feb), 143-155.
- Windle, M., & Dumenci, L. (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income coupl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 of Mar & Fam*, 59(Aug), 625-634.
- Yoon, H. R. (1996). *A study on associ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hysical symptom for hospital worker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Abstract -

##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Quality of Social Roles and Health for Married Working Mothers

*Park, Eun O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social roles and health for married working mother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ocial roles on Korean women's health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oles qualities and health.  
**Method :** Data were collected from 323 employed women with partner and children, lived in Seoul and near Seoul. Response rate was 62.3%. The instruments for measurements were Role Quality Scale developed by Park et al.(1999), Rosenberg's Self-Esteem Scale, and 31 items from SF-36 developed by Ware &

Sherbourne(1992). Results: The effect of marital role quality on self-esteem and the effect of parental role quality on health were not significant. Modification model fitted with the collected data very well, as evidenced by the small chi-square(0.58), the very high goodness-of-fit(GFI=1.00), and adjusted goodness-of-fit (AGFI=0.99), and very small root mean square residual(RMSR=0.0072). and the slope of Q-plot is over 1. 41% of the variance in self-esteem and 21% of the variance in health were accounted for by these variables.  
**Conclusion :** Further research concerned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ole and health relationship should be covered the issue of various role combin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ubfactor of quality of social roles on health.

**Key words :** Social role quality, Health, Self-esteem, Employed women, Structural equation model

---

\* Dept of Nursing, Cheju National University